

抒情詩와 叙事詩의 先後問題

梁 重 海

— 目 次 —

- | | |
|-----------|------------------|
| 1. 緒 言 | 3. 先後에 關한 學說과 批判 |
| 2. 最初의 詩歌 | 4. 結 言 |

Yang Chung-hae : Lyric and Epic Poetry Viewed in Order of Development.

SUMMARY

Most veteran scholars in our literary world (in Korea), discussing epic and lyric poetry, think that epic sprang up earlier than lyric poetry, and early works in Korea were the works in a transition period from the times of epic to the times of lyric poetry.

A few foreign scholars also think as our scholars. But the foreign scholars or Korean scholars, who think that epic sprang up earlier, have not thought about the earliest poems of our human being.

We can see thinking about only the oldest of poems.

It is sure that the oldest of the existing poems are not the earliest poems of human being.

When we synthesize the conclusion of all sciences that is able to presume ethnology, folklore, sociology, and other human life of prehistoric age, we can know that the poems of the beginning of mankind were lyric.

In this article, dealing with theories of domestic and foreign scholars, I conclude that lyric poetry sprang up earlier than epic poetry.

1. 緒 言

人類 最初의 詩歌가 抒情詩나 叙事詩나 아니면 同時的이나 하는 問題는, 學者들 間에 오래 論議를 거듭해온 問題이지만, 아직도 여기에 對해서는 定說의 確立을 못 본 것 같다.

그러면 이 人類 最初의 詩歌가 抒情的이나 叙事的이나 하는 問題는 아무렇게 解釋되어도 좋을 일이나 하면 決코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의 國문학을 論함에 있어서, 元老級에 屬하는 國文學者들은 우리의 上古 詩歌가 叙事詩

에서 抒情詩에로 發展해 왔다는데 거의 共通된 意見을 내세우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詩歌史가 提示하는 最古의 詩歌들이란 敘事詩에서 抒情詩에로 건너오는 過渡期的인 作品들이란 同時에, 祭天歌舞인 〈迎敷〉 〈東盟〉 〈舞天〉 등은 勿論, 呪術의 歌舞인 〈迎神君歌〉까지를 敘事的 詩歌라고, 高句麗 琉璃王 所作인 〈黃鳥歌〉를 抒情詩의 濫觴으로 들고 있으며, 저 新羅 儒理王代에 歌唱되었다는 歌詞不傳의 〈兜率歌〉를 그 過渡期的인 典型的인 作品으로 잡고들 있음에는 그 主張의 根據를 再檢討해 보지 않을 수 없다.

本稿에서는 抒情詩와 敘事詩와의 先後問題를 다룬 內外學者들의 學說을 摘出 批判함으로써 筆者의 所信을 밝히고 이를 우리 詩歌史에 摘用시킬 수 있는지의 與否를 檢討, 나아가서는 韓國 詩歌史의 올바른 體統을 밝히는데 寄與코자 하는 바이다.

2. 最初의 詩歌

現存 最古의 詩歌가 最初의 詩歌일 수는 없다.

現存 最古의 詩歌라면 中國의 〈詩經〉 收錄 詩歌라든가 希臘의 〈일리아스〉 〈오딧세이아〉, 또는 〈聖經〉에 나오는 헤부라이 古歌, 그리고 古代 印度의 베다文學에 나오는 詩篇들을 들 수 있겠는데 이들은 모두가 古代 文明地域을 中心으로 하여 이루어졌고 오늘에까지 남아있는 遺存 最古의 詩歌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호메로스의 敘事詩속에 그려진 英雄들의 青銅 투구가 決코 原始 時代의 武器가 아닌 것처럼, 호메로스의 敘事詩는 決코 原始 時代의 詩가 아니라고 喝破한 구로스(Ernst Gross)의 말처럼 上記의 古代 文明 地域을 中心으로 해서 이루어졌고 오늘에 남아있는 最古의 詩歌들은 決코 最初의 詩歌일 수는 없는 것이다.

韓國의 詩歌史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原形 그대로의 現存 最古의 詩歌로는 鄉歌를 들 수 있으며, 그보다 먼저 지어졌다고는 하나 그 歌名과 製作 動機만이 남아있는 〈兜率歌〉라든가, 漢譯歌로 남아있는 〈迎神君歌〉 〈黃鳥歌〉등이 있으나 그것 亦是 最初의 詩歌는 아니다.

「後漢書」 東夷傳이나 「魏志」 東夷傳에는 夫餘·高句麗·濊·馬韓 등의 詩歌生活이 紹介되어 있으며, 이들의 記錄을 綿密히 檢討하여 볼때에, 이들 詩歌의 形態와 內容이 原始詩歌의 性格을 띄고 있음만은 推定할 수 있으나, 그것 亦是 韓民族 最初의 詩歌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면 人類 最初의 詩歌, 韓民族 最初의 詩歌는 어느 것일까.

本間久雄은 그의 「文學概論」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一般的으로 말하면 人間에게 言語가 있을 때부터 詩는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¹⁾

즉, 最初의 詩歌는 最初의 言語와 同時에 있었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言語라고 하는 것은 실 새없이 發達하고 發展하는 것이다. 이 發達하고 發展하여 온 結果가 오늘의 言語 社會인 것이다.

이 言語는 人間과 人間과의 意思의 交通을 爲하여 그 手段 方法으로 發生하고 쓰여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恒時 人類文化史와 並行 發展해 온 것이요, 이 發展해 온 狀態를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人類 祖上의 아득한 어느 原始에 있어서는 거의 言語라고 할만한 것을 가지지 못하였을 時代를 假想할 수 있지 않은가. 그 때는 또 어떤 方法으로 意思를 疎通해 왔을까.

그리고 이러한 階段에 있어서의 詩歌의 狀態는 어떤 것이었을까.

이 點에 關係해서 「文學의 進化」(The Evolution of Literature)의 著者 맥켄지(Mackenzie)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어떤 意味에 있어서 詩는 明晰한 言語보다도 먼저 태어났다. 어떤 時代에는 人間은 言語가 없이 살던 時代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想像할 수 있으나, 肉體的으로 聲音의으로 여러 가지의 몸짓이나 부르짖음으로써 相互間的 感情을 서로 傳通치 않던 時代라고는 想像할 수 없다. 言語는 思索에 있어서 創意에 依해서 進歩를 包含하고 있다. 아마 最初의 聲音은 明晰하지도 合理的이지도 않았음에 틀림 없을 것이다. 오랜 뒤에 人間의 聲音은 合理的으로 되고, 드디어 合理的의임과 아울러 明晰하기도 하다는 狀態로 되었음에 틀림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서 비로소 참된 言語란 것은 肉體的 諸動作, 또는 몸짓으로부터 獨立한 것이다.²⁾

그는 言語의 發達 過程에 關係해서 이렇게 말하고, 詩·歌·舞踊의 發生에 對해서는

言語가 생기기에 앞서 人間에게는 부르짖음이 있었다. 이 부르짖음과 동시에 흥내내는 動作이 있었다. 이 부르짖음이 進化한 곳에 言語가 있고, 또 이 부르짖음에 리듬이 따른 것에서 音樂이 태어나고, 흥내내는 몸짓에 리듬이 同伴한 곳에서 舞踊이 생겼다. 어떤 意味에서 詩는 明晰한 言語보다도 먼저 생긴 것이다.³⁾

이처럼 말한 것이다.

말할 必要도 없이 人間에게는 言語가 생기기에 앞서 부르짖음이 있었다. 人間의 이 原始的 聲音 運動이 進化한 것이 言語인 것이라면, 人間은 明晰한 言語 以前의 聲音 運動에서 感情이나 意思表示의 手段이 있었을 것이요, 이래서 詩는 言語 以前에서부터 싹을 트고 있음을 首肯할 수 있다.

趙潤濟 博士도 그의 著 「韓國詩歌의 研究」에서

詩歌는 自然의 呼訴에 萌芽를 트고 있으나 이것이 具體的으로 나타나기는 原始民謠인 Ballad dance 다.⁴⁾

라고 말하였으며 他著 「韓國詩歌史綱」에서도 다시

詩歌의 發生은 어느 나라 어느 民族을 勿論하고 아득한 옛적 일이다. 이를 極端으로 말하면 人間의 發生과 同時에 詩歌가 發生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⁵⁾

이처럼 말했다.

最初의 詩歌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引用한 바 있는 本間久雄의 말이든가 맥켄지의 말이든가 或은 趙潤濟 博士의 말과같이, 言語가 생김과 동시에, 아니, 한걸음 나아가 言語 以前에 原始의 生活을 始作한 自然人的 呼訴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만하다.

즉, 가장 最初의 詩歌라고 하는 것은 自然人的 突發的인 感情語가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要컨대 人類 最初의 詩歌라고 하는 것은, 人類의 生活이 始作되던 그날에 人間이 內部的으로든 外部的으로든 어떤 強한 刺戟을 받았을 때 人間으로서의 反應인 思想 感情의 어떤 表現手段이 있었을 것인 즉, 그것은 聲音에만 依存한 것이 아니라 몸짓과 얼굴의 表情을 包含한 全身的 動作으로 表現했었다고 보겠다.

이처럼 最初의 詩歌가 明晰한 言語 以前의 自然人的 感激의 聲音에서 싹트다면, 第二段階로서는 單純 初步的인 言語에 依한 思想 感情의 表現이 있었을 터인데, 여기까지는 不充分 不完全한 言語의 表現을 補佐하여 言語 聲音의 音樂的인 表現과 더불어 肉體的 運動이 同伴하였겠고, 第三段階로는 言語의 發展에 따라 詩歌에 있어서의 言語性的 比重이 커감에 依하여, 言語와 音樂과 動作이 三位一體로 이루어졌던 詩歌 形態에서 音樂性和 肉體的 動作이 점차 脫落해감으로써 言語를 素材(表現手段)로 하는 詩歌가 獨立하게 되었겠고, 다음 第四段階로서는 言語性的 獨立에 依한, 또는 言語 優位的 詩歌이면서, 文字로 表記하기 以前의 口誦詩, 이른바 물론 (R. G. Moulton) 教授가 말한 <口頭文學> (Oral Literature)⁹⁾ 이라고 하는 過程을 겪었을 것이며, 다음 文字에 依한 記錄 表現이 重大한 比重을 차지하게 되는 오늘에 와서는, 人間의 思想, 感情 및 生活을 言語 記號인 文字에 依하여 表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藝術로서의 詩가 確立된 것이다.

要는 最初의 詩歌라고 하는 것은 現存 最古의 詩歌가 아니라, 아득한 原始 社會, 人類 最初의 社會에 있어서, 人間이 어떠한 刺戟을 받았을 때의 反應인 思想 感情의 表現 手段이었을 터이므로 그것은 聲音에만 依存한 것이 아니라 몸짓과 表情을 包含한 全身的 動作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3. 先後에 關한 學說과 批判

詩歌의 發生에 있어서 抒情詩가 먼저나 敘事詩가 먼저나 하는 問題를 中心으로 國內외의 著名한 學者 또는 文人들의 意見을 摘出 引用하고 이 學說들의 妥當性 與否에 對한 筆者의 愚見을 陳述하고자 한다.

梁柱東 博士는 「古歌研究」에서 上代 歌謠의 一斑을 論함에 있어 夫餘의 <迎鼓> 高句麗의 <東盟> 濊의 <舞天> 馬韓의 農功歌舞에 對해서

原始社會는 모든 것이 部落氏族을 單位로 하였고 그 생활은 大部分 自然에 對한 畏敬恐怖中에 爲爲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歌舞는 언제나 集團의 宗教의임에 特徵이 있다. 그들에 있어서는 아주 個人的 叙情的 歌謠는 發達을 보지 못하였고, 언제나 全體的으로 이루어진 歌謠를 集團의 儀式中에서 行事的으로 歌唱하였다.⁷⁾

라고 하여 集團의 宗教的인 性格을 띤 <迎鼓> <東盟> <儺天> 馬韓의 農功歌舞 등은 아직 抒情的 가요가 發達하기 以前의 가요라고 한 것이다.

이는 上記의 諸祭天歌舞는 集團의 宗教的인 特徵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 되겠거니와, 이를 叙事詩 抒情詩로서의 體系 속에서 考察할 때 이러한 祭天歌舞들은 叙事的인 詩歌라고 말하고 있음이 分明하다.

이어 다시 駕洛國 首露王과 關聯된 <迎神君歌>에 對하여도 다음과 같이 言及하고 있다.

東方 古民의 原始 宗教가 漸次 샤만의으로 形成됨에 따라서 그 原始 歌謠의 內容이 또한 單純한 天神 日神 其他에 對한 祝禱的 意味 以外에 顯著히 呪術의 內容을 가지게 되었을 것은 亦是 推測키 不難하다.⁸⁾

이 말은 韓國의 原始 宗教의 體系가 「祭天」에서 「샤만의」으로 移向하였다는 이야기요, 原始 歌謠의 內容도 「祝禱」에서 「呪術的」인 傾向으로 바뀌었다는 말이다.

梁博士는 <迎鼓> <東盟> <儺天> 등은 「祝禱的」歌舞이고 <迎神君歌>는 「呪術的」歌舞라고 規定짓고, 이 두 歌舞를 基準으로 前後의 體系를 세우고 있으니, 우리가 原始 宗教의 實相을 考究하여 볼때에 「祭天」이란 것도 「自然崇拜」(Naturism)의 한 樣相에 不過하다면, 原始 宗教를 支配해온 내츄리즘(Naturism) 아니미즘(Animism) 샤마니즘(Shamanism)은 時期의 先後에는 不關하여 共存하고 있었다고 보겠다.

梁博士는 다시 <兜率歌>에 對해서 言及하면서, 「儒理王代에 濫觴된 兜率歌는 上古의 純然한 宗教的 儀式的 祝詞와 近古의 抒情謠의 中間 形式을 보인 者로서, 그 歌樂의 形式이 아주 集團的인 것은 舊型을 그대로 傳守하나, 그 內容이 顯著히 即生活的 叙情的인 性質을 推測할 수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兜率歌>를 「集團的 宗教的인 歌謠」와 「即生活的 叙情的인 歌謠」와의 中間 形式의 노래라고 論斷한 다음에 「集團的 宗教的인 아닌 個人的 叙情風의 가요가 發生됨은 훨씬 더 時代가 나려움을 要한다.」라고 前提하여 놓고, 「震域 最初의 叙情的 歌謠는 저 高句麗 琉璃明王의 黃鳥歌 云云」하였음은 韓國의 詩歌史上 最初의 抒情詩는 <黃鳥歌>라는 뜻이다.

梁柱東 博士의 所論의 要旨는 震域 上古 社會의 詩歌生活의 變遷史를 말한 것이 되겠다고 보겠지만, 처음 「祭天的」에서 부터 始作하여 다음 「샤만의」으로 그리고 過渡期的 「中間 形式」을 거쳐 「抒情的」인 內容으로 되었다 함이다.

梁柱東 博士는 上記 所論中 「叙事的」또는 「叙事詩」라는 말은 쓰지 아니하였으므로 「集團的 宗教的」에서 「個人的 抒情的」으로의 關係를 陳述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다시 叙事詩·抒情詩의

体系 속에서 整理하였을 때 「叙事的→中間形式→抒情的」의 前後 關係가 成立됨을 알 수 있다.

우리 詩歌史에서 가장 上古 時代에 屬하고 있는 歌舞인 夫餘의 〈迎鼓〉, 高句麗의 〈東盟〉, 濊의 〈舞天〉, 馬韓의 農功歌舞 등은 歌舞生活의 規模, 動機, 樣相等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아직 詩·音樂·舞蹈이 未分化 狀態로 있는 原始 綜合藝術 形態인 이른바 Ballad dance의 形態를 지니고 있었음은 推測하기에 어렵지 않다. 그리고 駕洛國 首露王의 誕生說話와 結附된 〈迎神君歌〉의 형태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歌舞生活의 內容은 祝禱의 呪術의 內容을 지녔을 것임은 疑心할 수 없다.

다만 〈迎鼓〉, 〈東盟〉, 〈舞天〉, 〈迎神君歌〉 따위의 歌舞가 氏族 집단인 集團의 歌舞이긴 하지만 〈集團이 부른 노래〉와 〈集團을 노래〉하였다는 것은 同一한 概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再考의 餘地가 있다. 〈集團〉이란 用語가 叙事詩를 特徵지우는데 必要 不可缺의 用語이긴 하지만 〈集團〉이 主体나 對象이나에 따라 性格이 달라질 것이다.

오늘의 國歌 또는 愛國歌 따위는 분명히 「國家」나 「國民」 따위 集團을 意識하고 그것을 노래한 것이 틀림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亦是 愛國的 抒情詩이지 叙事詩는 아닌 것이다.

梁柱東 博士는 上記 所論中, 諸原始 歌舞行事를 두고 「個人的 叙情的 歌謠가 發達하기 以前の 歌謠」라 말하였거니와, 이 말이 人類 最初의 詩歌가 抒情的이나 叙事的이나를 決定지우는 要點이 될 것이다.

먼저, 〈迎鼓〉, 〈東盟〉, 〈舞天〉 따위의 集團歌舞가 行하여지던 당시, 個人的 喜怒哀樂의 感情이라든가 自然에 對한 感興 따위는 느끼지 못하였을까. 設使 個人的 喜怒哀樂을 느꼈다 하더라도, 그것을 感情的 聲音 律調로서 表現하려는 衝動은 일어나지 않았을까. 人間 心性의 法則을 생각할 때, 그런 時代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다. 人間 生活의 原始的 段階에 있어서도 亦是 個人的 喜怒哀樂은 있었을 것이고, 이것을 不完全한 言語와 感激의 聲音으로 잘막한 부르짖음 程度로라도 表現하고야 말았을 터인데, 古文献일 수록 이러한 個人的인 生活에 留意하지 않고, 異彩를 띤 集團의인 行事인 〈迎鼓〉, 〈東盟〉, 〈舞天〉 따위의 祭天 歌舞行事만이 文献에 收錄되어 남았다고 보겠다. 하물며 「魏志」나 「後漢書」나 하는 文献에 收錄된 記錄이, 漢人의 눈에 띤 東夷人의 歌舞生活에 關한 記錄임을 생각할 때, 首肯할 수 있다고 본다. 무릇 學者들의 誤謬는 原始人의 生活 自体를 研究하지 않고 文献 中心으로만 이를 다루려고 할 때, 集團의 行事의 歌舞만이 있었고 個人的 抒情的 歌舞는 애당초 없었던 것으로 보아 버림의 잘못이다.

오스트렐리아 原住民의 生活은 항상 二形相의 生活을 늘 되풀이 하고 있음에 着眼한 들케임 (Émile Durkheim)의 陳述은 達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오스트렐리아 原住民의 生活은 個人的 小集團의 生活과 氏族의 大集團의 生活을 交代로 되풀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個人的 小集團의 生活이란, 食料를 求得하기 爲한 生活로서 狩獵 漁撈에 從事할 때의 生活이요, 氏族의 大集團의 生活이란, 宗教的 歌舞行事를 할 때의 生活이나, 前者는 凡俗의 世界의 生活이요, 後

者는 神聖의 世界의 生活인 것이다. <迎鼓>, <東盟>, <舞天> 따위 集團 歌舞는 後者 즉 神聖의 世界의 生活이다. 夫餘, 高句麗, 濊等 古代國家社會의 構成員에 있어서는 이러한 集團 歌舞 以外の 詩歌의 生活은 全無였었다 주장한다면 이는 論理外의 일이다.

다음, 抒情詩와 叙事詩와의 先後 問題는 學者마다의 信念에 따른 것이니 再論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震域 最初의 抒情의 가요가 <黃鳥歌>라면 琉璃王代 以前의 이땅 사람들은, 集團의 宗教的인 노래밖에 부를 수 없었다는 말이니, 이의 矛盾은 누구나 쉬이 發見할 수 있지 않은가. 이는 「震域 最初의 叙情的 가요 云云」을 「文獻에 收錄 遺存된 詩歌로는 震域 最初의 抒情의 가요」라는 뜻이라고 推定하고 이렇게 添加하여 놓으면 좋다고 본다.

그리고 詩歌의 始原 問題와 關聯시키면서 考察할 때, 文獻 所載의 詩歌는 아주 後代作임을 알 수있는 것이요, 이는 最初의 詩歌가 叙事詩였나 抒情詩였나와는 無關한 일이다. 저 新羅 儒理王代에 이루어 졌다는 兜率歌를 두고 三國史記에 「此歌樂之始也」라고 記錄되어 있음과 同軌이다. 此歌 즉 <兜率歌>가 歌樂의 始라함은 누가 보더라도 妥當性 없는 말이니 <國朝所定의 歌樂으로서는> 따위의 但書가 있어야 그러한 範疇의 歌樂으로서는 처음이라 할 수 있지 않을가. 梁柱東 박사는 다시 <兜率歌>에 對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儒理王代에 濶稱된 「兜率歌」는 上古의 純然한 宗教的 儀式的 祝詞와 近古의 叙情謠의 中間形式을 보인 故로서 그 歌樂의 形式이 아주 集團의인 것은 舊型을 그대로 傳守하나 그 內容이 顯著히 卽生活的 叙情的의 있었음을 推測할 수 있다.⁹⁾

歌詞不傳의 <兜率歌>가 集團의이었는지 卽生活的이었는지 그 製作動機에서 推定한다 하더라도 疑問이 남는다.

要是 上古의 宗教的 儀式的 祝詞따위를 叙事的 詩歌라 하더라도 그러한 上古社會에 있어서 宗教的 儀式的 祝詞 以外の 個人的 抒情謠가 있었을 것임은 疑心할 餘地가 없다.

趙潤濟 박사는 詩歌의 起源을 論하는 첫머리에서

詩歌는 自然人的 呼訴에 벌쳐 그 萌芽를 트고 있으나 이것이 具體的으로 나타나기는 原始民謠인 Ballad dance가.¹⁰⁾

라고 말하였으니 그 詩歌의 萌芽인 自然人的 呼訴가 抒情的인지 叙事的인지는 自明의 理致이다.

그런데 다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太初, 卽 文學이 胎動할 그 最初에는 抒情的이었던가 叙事的이었던가. 換言하면 抒情文學이 먼저이었던가. 叙事文學이 먼저이었던가 하는 問題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問題만큼은 容易히 解決될 것도 아니며, 또 學者에 따라 제가끔 다른 理論을 가지고 있다.¹¹⁾

즉 이 問題는 學者에 따라 다른 理論을 가지고 있다고 前提하고

그 先後 問題는 理論에 있어 사림에 따라 다를 뿐 아니라 或은 先天的인 民族性에 있어서도 다른 點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韓國의 文學에 있어서는 그 어느 것이 먼저이었던가.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問題는 아직 確實치 못하고 있다. 다만 韓國의 詩歌에는 主觀的 情意를 基礎로 한 것보다 祭天中心의 宗教的 歌舞에서 더 일찍이 發達한 듯하니 或은 敘事詩의 發達이 抒情詩의 發達보다 앞서지 않는가 하는 疑心이 있을 뿐이다.¹²⁾

이렇게 말하였다. 여기 「先天的 民族性에 있어서도 다른 點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함은 荻原 朔太郎氏가 「西洋은 敘事詩에서 始作하고 日本은 抒情詩에서 起元하였다」¹³⁾ 고 主張함과 相通하거니와 大体로 現存 文獻 또는 現存 作品에 지나치게 依存하려고 할 때, 이러한 結論을 내리기 쉽다. 例를 들면 希臘의 遺存 最古의 詩가 호메로스(Homeros)의 <일리아스>(Ilias)와 <오디세이아>(Odysseia)요, 한편 漢族이 남긴 東洋 最古의 詩가 <詩經>所收의 三百篇의 詩라고 한다면, 前者는 敘事詩요, 後者는 抒情詩인 것이다. 이처럼 現在 遺存되어 있는 詩를 中心으로 볼 때는 古代希臘의 文學은 敘事詩가 앞섰고, 古代 漢族의 文學에서는 抒情詩가 앞섰다고 말할 수 있을 것도 같다.

趙潤濟 博士도 梁柱東 博士와 같이 祭天中心의 宗教的 가무를 敘事的으로 보고 自信있는 斷定은 아니면서도 敘事詩가 앞선 것으로 보고 있다.

李秉岐 博士는 「原始的 敘事文學 가운데서 祝禱 또는 祈願의 要素의 部分이 分化 獨立하여 抒情詩로 形成되었다」¹⁴⁾ 고 말하였거니와 이도 人類 最初의 詩歌가 敘事文學이라는 前提에서만이 可能한 말이요, 分化 過程도 돌튼(R. G. moulton)의 意見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돌튼教授는 文學의 原型質로서 民謠舞踊을 들고, 이 民謠舞踊에서 言語性이 優勢하면서 敘述로 나아갈 때 敘事詩, 音樂性이 優勢하면서 명상적 創造物일 때 抒情詩, 所作이 優勢하면서 表出을 指向할 때 戲曲이, 이처럼 各各 分化 獨立됨을 圖表로써¹⁵⁾ 提示한바 있다. 李秉岐 博士의 말대로 原始 敘事文學에서 果然 抒情詩가 分化 獨立될 것인지는 後考를 기다릴 수 밖에 없다.

呪術的 시가인 <迎神君歌>를 많은 學者들이 敘事文學으로 다루고 있음에 反하여 李秉岐 박사만은 抒情詩라 하고, 이를 「原始詩歌中에서 祈願 祝禱의 部分이 抒情詩化하는 좋은 例」로 보고 있는데, 筆者의 所見으로도 祈禱 祝願의 四言 四句 한 首의 詩歌 「龜何龜何 首其現也 若不現也 燻灼而喫也」이것만 가지고는 敘事詩가 될 수 없음은 確言할 수 있다. 論題에서 벗어난 이야기가 되겠지만 筆者는 이 四言 四句의 詩만을 問題삼을 것이 아니고, 遺事所載 「駕洛國記」全文을 問題 삼아야 될 줄 안다. 그렇게 되면 한篇의 敘事文學 「駕洛國記」는 敘事文學임과 동시에 우리는 「原始劇」을 보여주는 좋은 例를 發見하게 될 것이다.

張德順 教授도 古記錄에 나타난 가무들이 呪教的, 種族的, 宗教的, 集團의 旨을 推測할 수 있다고 하여, 이런 敘事詩의 時代가 우리 文學史에서는 西紀 紀元을 前後한 時期에 와서 抒情詩

時代로 옮겨 지면서, 그 西紀 紀元을 前後한 約 半世紀동안을 過渡期的 現象으로 보았다¹⁶⁾.

이래서 抒情에 <黃鳥歌>, 叙事에 <龜旨歌>, 過渡期的 性格의 作品에 <兜率歌>를 指摘하였으니, 이 論旨는 架柱東막사의 意見과 同軌이다.

土居光知氏는 叙事詩가 發生하느냐, 抒情詩가 發生하느냐, 하는 問題는 時代的 背景의 特殊한 條件에 따르게 된다고 主張하고 그의 著「文學序說」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선 첫째 數世紀에 亙하여 生長을 하는 것과 같은 團體組織, 或은 組織改造의 事業이 있는 것이다. 그 全体的인 活動이 叙事詩를 낳게하는 所緣이 된다. 이 事業이 이루어 졌을때 個人은 처음으로 自己의 內部에 沈潛할 수 있다. 새로운 生活의 理想과 願望은 먼저 이들의 個人에 依해서 느껴질 것이다. 여기에 抒情詩가 태어난다. 이러한 理想과 願望을 품은 사람들은 그것을 社會에 나아가서 生活에 實現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想像하고 또한 實際로 한 것들을 反省한다. 여기에 「로망스」가 태어나게 되고 個人이 自己의 理想 或은 願望과 衝突하게 된다. 여기에서 意志와 意志와의 衝突을, 그리고 그 속에 있는 必然을 顯現하며 總計算을 하게 될 時期가 온다. 이것이 劇의 時代다.¹⁷⁾

이 主張의 論旨는, 記錄으로 遺存되고 있는 文學, 有史以後의 文學作品을 中心으로 할 수 있는 말인듯 하니 社會組織이 弱한 原始社會에 있어서의 人間의 生活이나 思想 感情은 單純 素朴하였을 것인 즉, 그런 時代的 特性이 反映된 詩歌라면, 젊고 單純하고 素朴한 樣式의 詩歌를 낳게 하였을 것이다. 그것은 叙事詩는 아닐 것이다.

빅틀·유우고 (Victor Hugo)의 다음의 말은 時代에 相應하는 文學의 型을 생각하는데 큰 暗示가 될 것이다.

原始時代에 있어서 人間은 呼吸을 함과 마찬가지로 自然스럽게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人間은 젊고 抒情的이 있다. 祈禱가 그들의 宗教의 全部였으며 그들의 詩는 모두가 頌歌였었다. 그 後 家族이 모여 漸次 種族으로 되고 種族이 國家가 되고 遊牧의 放浪이 社會의 本能이 되고 …… 國家와 國家사이에 葛藤이 생기고 戰爭이 일어났다. 文學은 이 大事件을 反映하여 感想보다도 事實을 노래하게 되고 時代는 民族을 國家를 노래하게 되었다. 卽 叙事詩로 되고 호메로스가 태어났다. 叙事詩는 여러가지 形體를 取하나 決코 이 性質을 잃지 않았다.¹⁸⁾

빅틀·유우고는 人間의 發達을 原始時代 古代, 近代로 나누고 抒情詩, 叙事詩, 劇이, 이에 相應하는 文學의 型으로 생각하고, 이와 같이 말했으나, 原始社會生活은 抒情詩의 時代요, 漸次로 내려와서 種族과 國家間에 葛藤이 일어나게 되던 古代社會는 叙事詩의 時代, 近代는 劇의 時代라는 것이다.

이 時代區分에 따른 人類의 內面的 精神의 特徵과, 이에 相應하는 文學型을 想定해 볼 수는 있으나, 오늘의 文學史가 반드시 이 順序대로만 내려온 것은 아니다. 假令 劇은, 最後의 段階인 近代의 文學이 되어야 할것 같지만, 우리는 原始社會에 있어서의 原始劇을 생각하지 않을수가 없다. 詩歌의 起源이 原始 綜合藝術에서 出發하였다면 그것은 原始劇과 共存하여 온것이 된다. 우리는 <迎神君歌>라는 한 首의 原始的 詩歌를 傳하여 주는「三國遺事」의「駕洛國記」가 原

始劇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九干等이 首露王을 駕洛國 初代 王으로 推戴하는 聖스럽고 嚴肅한 式이 劇의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오늘의 巫覡들의 巫俗 行事에 있어서도, 그 行事의 樣相이 劇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例를 가끔 볼 수 있다.

빅롤·유우고의 <크롬웰> (Cromwell)은 五幕韻文劇이지만 이는 그 五幕劇의 作品自体 보다도 <抒情詩, 浪漫主義宣言>으로 알려진 <序文> (Préface de Cromwell)이 有名하다.

보베(Ernest Bovet)氏は 文學樣式에 關한 中心觀念은 빅롤·유우고의 이 <크롬웰> 序文에 依據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抒情詩는 感情의 절음의 넘침, 正確한 目的없는 精力의 橫溢, 信仰의 奔流로서 그 主要한 對象은 神 戀愛 自然이라는 것이요, 叙事詩는 活動하며 征服하는 成熟期로서, 이야기 하는 것 그 自身 하나의 行爲이면서 現實의 生活속에 있어서 自己를 肯定하고, 또한 다른 個人 或은 團體와 싸워서 自己를 肯定하는 個人 또는 團體, 劇은 하루의 마지막으로서 거기에는 暗黑과 光明이 엇갈려진 人生의 行路에서, 서로 矛盾되는 義務의 葛藤, 現實과 새로운 理想과의 衝突, 良心의 苛責등으로서, 그 對象으로는 自己 自身과 鬪爭하는 人間, 一時的인 것과 普通 永遠한 것과의 鬪爭이라고 말하였다. 21)

보베氏가 文學樣式的 展開를 이렇게 主張하였음은 빅롤·유우고의 意見과 같다. 그가 文學樣式을 세가지로 分類한 出發點은 어떤 時代精神이 한 社會에 實現되어 가는 過程에 있어서, 그것이 願望으로 느껴지는 青春期, 實現되어가는 成熟期, 破綻과 沒落에 이르는 傳換期를 말하고 要는 抒情詩는 願望, 叙事詩는 活動과 熱情, 劇은 晴鄕으로 向하는 危機라 하였으니, 이 樣式은 歷史上 한번만 되풀이 하는 것이 아니라, 青春期, 成熟期, 衰退期로 몇차례라도 되풀이 된다는 것이다.

보베氏의 이 文學樣式的 展開 反復說은, 土居光知氏도 同調하고 있지만 이 事實은 世界文學思潮의 變遷史에 있어서도 事實로서 具現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것은 抒情詩 叙事詩 劇이라는 樣式的 反復에서가 아니라 浪漫主義의인 文藝思潮와 古典主義의인 文芸思潮의 週期的 反復을 世界文芸思潮史에서 認定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時代에 있어서이든 新思潮는 젊고 積極的인 願望으로 마지하게 되며 (Lyrisme) 不完全하면서도 實現되며 (Épopée) 새로운 思想안에 沒落한다. (Drama). 이렇게 생각되는 社會는 한번만의 青年期, 壯年期, 老年期를 通過하여 死滅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몇번이라도 되살아나 青年期, 壯年期, 老年期를 마지하는 것이니, 抒情詩, 叙事詩의 展開도, 오직 한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社會가 青春期를 지나는 數만큼 抒情詩의 時期가 있게 된다는 것이다.

文學 樣式的 反復說은 注目할만한 考察이나, 人類 最初의 詩歌가 抒情詩나 叙事詩나 하는 問題에 어떻게 適用시키느냐 하는 點에는 疑問이 남아있다.

土居光知氏가 그의 著「文學序說」에서 抒情詩와 叙事詩의 先後問題를 追求함에 있어서, 前述한 빅롤·유우고氏와 보베氏의 說을 많이 取하고 있음을 보나, 빅롤·유우고氏와 보베氏가 抒情詩

→叙事詩의 順으로 보고 있음에 反하여, 土居光知氏는 叙事詩→抒情詩의 順으로 陳述하고 있음이 다르다.

土居氏는 「文學序說」에서 「文學의 樣式的 展開에 對하여」라는 項에서 보베氏의 主張을 批判하면서 「文學이 舞蹈歌에서 비롯하고 叙事詩의 時代에 뒤이어 抒情詩의 時代가 오고, 抒情詩의 속에서 譚話(物語)가 생기고, 이들의 創作의 態度 및 表現의 樣式을 綜合한 것으로서 劇이 만들어 졌다는 것은, 古代 希臘 文學이나 古代 日本文學의 研究에서 明確히 認定되는 바이다.²³⁾ 라고 하여 文學 樣式 展開의 過程을 叙事詩, 抒情詩, 譚話(物語) 劇의 順으로 說明하였다.

樣式 展開의 順立를 先叙事, 後抒情으로 잡은 것은 스스로 밝혀 말하고 있듯이 古代希臘文學이나 古代日本文學을 보고 말한 것 같으니,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가 希臘 最古의 文學이요, 日本文學에 있어서의 「古書記」「日本書紀」의 作品들도 그러한 意義를 지니고 있으니, 이로써 抒情詩보다 叙事詩가 앞섰다고 보는 것도 같다. 그러나 호메로스의 叙事詩속에 그려진 英雄의 青銅투구가 決코 原始時代의 武器가 아닌 것 처럼, 호메로스의 叙事詩는 決코 原始時代의 詩가 아니다라고 말한 구렛세(Ernest Gross)의 말처럼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가 人類 最初의 詩가 아니고 「古事記」「日本書紀」의 記錄이 日本民族 最初의 原始文學이 아님을 否認할 수 없다. 따라서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以前에 「古事記」「日本書紀」 以前에 詩歌가 있었을 터인즉, 그 最初의 詩歌가 무엇이었느냐를 究明해야 하는 것이다.

土居氏의 前記한 陳述 「文學이 舞蹈歌에서 비롯하고 叙事詩의 時代에 뒤이어……」라고 하였으나, 그 叙事詩以前의 舞蹈歌가 抒情的이나 叙事的이나 하는 問題가 解決되면 그만이다. 그런데 氏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民謠라고 하는 것은 文字로 定着되지 않은채 舞蹈, 動作을 同伴하여 合唱됨이 常例이며, 民間에 떠돌아 다니는 목소리로써 存在하는 모든 種類의 노래를 總括하는 名稱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叙事詩, 劇詩와 並稱되는 文學上의 한 種類가 아니라 그 自身이 하나의 体系이며, 記錄된 文學이 아직 二, 三千年밖에 經過되고 있지 않음에도 不拘하고 數萬年의 年令을 쌓고 있어 그 幼稚하면서도 抒情的인 것 譚話의인 것, 劇的인 것을 지니며, 오늘에 와서도 아직 記錄된 文學을 가지지 못하는 素樸한 人類의 사이에는 殘存하고 있는 것이다²⁴⁾.

土居氏의 이 말의 論旨는, 民謠는 抒情詩, 叙事詩와는 別途의 体系이며, 記錄된 文學으로서의 抒情詩, 叙事詩, 以前의 數萬年동안의 抒情的인 것, 叙事的인 것 劇的인 것을 內包한다고 말한 것이다.

따라서 그가 스스로 樣式展開의 順立로서 밝힌 叙事詩→抒情詩의 概念속에서 民謠나 其他의 口誦文學, 즉 記錄되지 않은 一切의 原始文學은 考慮에 넣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土居氏는 이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元來 抒情詩라는 말은 合唱歌에 對하여 쓰여진 말로써 豎琴에 맞추어 혼자 부르는 노래요. 舞蹈歌

는 大衆과 더불어 춤을 추며 스스로를 잊고 合唱하는 노래, 抒情詩는 個人이 大衆을 떠나서 自然的으로 노래 불리워진 內面的인 노래(Chant intérieur)인 것이다. 이렇다면 民謠를 抒情詩속에 包含시키는 無理라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²⁴⁾

여기에서는 抒情詩와 舞蹈歌의 概念을 밝히고 民謠를 抒情詩속에 包含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土居氏의 主張에서 먼저 問題가 되는 것은 文字로 記錄된 文學 以前의 抒情的인 民謠를 文字로 表記된 文學 以後의 抒情詩와는 別途로 다룸으로써 두 形態의 先後問題에서 民謠를 除外하여 버렸다.

本論稿의 主題가 人類 最初의 詩歌를 놓고 그것이 抒情的이나 叙事的이나를 밝히려는 것인데 여기에서 民謠가 除外되어 버린다면 抒情詩, 叙事詩의 先後問題는 無意味한 일이다.

荻原朔太郎氏는 「詩의 原理」라는 著書에서, 詩의 歷史는 地球의 西와 東으로부터 同時에 따로 따로 發展해 왔음을 말하고, 西에서는 希臘의 叙事詩를, 東에서는 日本의 抒情詩를 指稱함으로써 西洋은 叙事詩에서, 日本은 抒情詩에서 起元하고 있음을 主張하고 있다.²⁵⁾

荻原氏의 이 主張은 抒情詩와 叙事詩와의 先後問題를 다룸에 있어, 「或은 先天的인 民族性에 있어서도 다른 點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한 趙潤濟 박사의 所說과도 相通하는 말이거니와 齋藤清衛氏는 「日本文學의 叙事性에 對해서」라는 論文에서 前述한 荻原氏의 所論에 同調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혔다.

이 說이 大体로 妥當하다고 함은 이리이스의 詩精神과 萬葉集의 詩精神과의 比較만으로도 納得할 수 있다. 또한 世界의 詩精神을 叙事的과 抒情的과의 二部門으로 나누는 便宜는 現代의 常識으로도 되어 있거니와 여기에서 問題가 되는 것은 叙事詩 抒情詩 兩者의 限界를 어데 두느냐는 問題일 것이다.²⁶⁾

齋藤氏는, 叙事詩와 抒情詩의 先後問題를 다룸에 앞서 叙事詩와 抒情詩의 概念規定과 兩者의 特徵的 差異가 確定되어야 한다고 強調하고 있다.

事實上 抒情詩와 叙事詩와의 先後問題를 다룸에 있어 兩者의 特徵的 差異를 確定지우지 못함으로써 招來되는 混亂을 國內의 國文學者들의 所論에서 많이 發見해 낼 수 있음은 甚悉한 일이다. 이 概念規定의 問題는 原始文學, 原始詩歌에 溯及할 수록 容易하지 못한 것이니 兩者 先後의 混亂은 概念規定의 混亂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本間久雄氏는 그의 「文學概論」에서 抒情詩가 叙事詩보다 앞섰다고 主張하고 있는데 그 主張의 論據는 藝術의 起源說에 있어서 主로 發生學의인 立場에 서있는 그릇세(A. Grosse)나 맥켄지(A. S. Mackenzie)의 學說을 援用하고 있음이 分明하다.

그리고, 叙事詩가 抒情詩보다 앞섰다고 主張하는 西洋詩學家의 見解는 아리스토틀(Aristotle)의 「詩學」이 文學의 一部門으로서 叙事詩는 認定하면서 抒情詩를 認定하지 않음에서 부터 胎動한 생각일 것이라고 斷定하였다.²⁷⁾ 아리스토틀에 있어서는 소리내어서 노래하게 되

는 歌謠가 아닌, 노래할 수 없는 抒情詩가 있다는 것, 음악이 伴奏가 없는 抒情詩가 있다는 것에 對해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 같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本間氏는 叙事詩를 抒情詩보다 먼저 일어났다는 見解는 전혀 事實을 無視한 說이라 規定짓고

人間의 感情을 表白하게 되어서 第一 먼저 나타난 것은 抒情詩라고 말할 수 있다.²³⁾

이처럼 抒情詩와 叙事詩의 展開 順位에서 서정시가 먼저임을 確言한 것이다.

서정시는 感情의 表現이요, 叙事詩는 事件의 叙述이라고 한다면, 第一 먼저 나타난 것이 抒情詩라는 데는 贊同하지 않을 수 없다.

「詩學提要」(Handbook of Poetics)의 著者 감미어(F. Gummer)는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이다.

叙事詩는 外界에 屬한다. 그 職能은 叙述하는데 있다. 그것은 <아킬레우스>(Achilleus)의 분노이거나 <율리시이스>(Ulysses)의 漂流이거나 또는 비오울프(Beowulf)의 恐怖이거나를 노래 한다. 그것은 오직 일어났던 事件을 報告할 뿐이다. 抒情詩는 다르다. 그것은 主觀의이며 個人으로부터 태어났다. 이것은 事件을 다루지 않고 感情을 다루는 것이다. 이것은 叙事詩보다도 文化가 進歩한 階段에 屬한다. 포울 알베루(Paul Albert)는 말하고 있다. 「抒情詩人은 새로운 社會의 解説者이다. 그들 앞에 열려진 分野는 마치 人間의 必要나 慾望이나 精力과 같이 넓고 無限하다. 小兒나 古代社會는 그들의 周圍의 事實을 事件이나 自然的인 일거리등으로 滿足하고 있다. 그러나 人間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의 世界, 곧 慾望, 希望, 恐怖등에 自覺해 오게 되면 그런것을 表現하려고 한다. 거기에 抒情詩의 職能이 있다.」²⁴⁾ 라고

이처럼 감미어나 그가 引用한 포울 알베루는 抒情詩는 叙事詩보다도 文化가 前進한 階段에서 나타났다고 하였다.

여기 말한 것처럼 叙事詩는 일어났던 事件을 報告할 뿐이고 抒情詩는 事件을 다루지 않고 感情을 다룬다는데 對해서 異義를 提示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고대 희랍의 詩가 <아킬레우스>의 분노이거나 <율리시이스>의 漂流이거나 <비오울프>의 恐怖와 같은 事件을 다룬 것이라면 그러한 事件을 다루어 보기 以前에 人間은 感情에 따라 노래하는 일이 있었지 않았던가. 人間은 어떠한 大小事件에 부딪혔을 때, 그 事件을 報告하기에 앞서 어떠한 形態의 歡喜, 또는 恐怖 따위의 感情이 있었을 것이니, 그러한 感情을 짙막한 부르짖음, 또는 몇마디의 언어적인 表現이 있었다면, 그것은 抒情詩의 原形質이었을 것이다.

本間久雄氏의 말을 빌리면 감미어가 그 先後問題를 다룸에 있어 叙事詩를 先으로 놓고 생각하게 된 것은 아리스토텔의 「詩學」에 抒情詩에 對한 말이 없다는 事實이라든가, 희랍 最古의 詩가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二篇의 叙事詩였다는 事實에서 推定된 結論일 것이라고 하면서

叙事詩 抒情詩의 先後問題에 있어서, 文獻란 爲主로 先叙事라 함은 妥當치 못한 일이라고, 구룻세 (Ernest Grosse)나 맥켄지 (Mackenzie)의 意見을 引用하면서 말하였다.

구룻세가 그의 著「藝術의 起源」(The Origins of Art)에서, 歐羅巴의 文明民族의 文學이 호메로스의 叙事詩를 가지고 비롯하고 있으나, 그의 詩속에 그려진 英雄의 靑銅투구나 칼이 결코 原始時代의 武器가 아닌 것처럼 호메로스의 叙事詩는 결코 原始 時代의 詩가 아니라고 주장한³⁰⁾ 말이든가, 맥켄지가 그의 著「文學의 進化」(The Evolution of Literature)에서, 希臘文學에서 호메로스의 모습은 참으로 他를 制壓하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람들은, 문학형식 속에서 가장 오랜 것은 叙事詩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實은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아>를 人類學에 비추어 仔細히 研究한 結果는 叙事詩는 抒情詩보다 以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證明된다고³¹⁾ 하여, 抒情詩가 앞서고 있음을 心理學的 立場에서 說明하고 있다.

原始的 藝術의 중심양식인 민요무용에는 극적 要素 抒情的 要素, 그리고 譚話의 要素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心理學的 立場에서 본다면 譚話的 要素, 곧 叙事詩는 가장 늦어서 發生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單純한 意味에 있어서의 劇은 기껏 무슨 意味를 包含시킨 身體運動을 가리킨 것에 不過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또 서정시도 무용의 리듬으로 생겨나온 不明瞭한 律語에 不過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사시는 어떻게 單純하고 幼稚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줄거리 있는 <이야기>를 包含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劇이나 서정시의 要素는 아직 單純한 感情의 表現에 不過하나, 서사시가 되고보면 그 속에 어느 程度의 反省作用이 끼어들어서 感情을 先導하여 가는 것이다.

<이야기>를 꾸며 말한다는 것이 單純한 感情을 表現하는 것보다도 大體로 程度가 높은 精神力을 要한다고 한다면 原始文學의 根幹으로부터 나온 가지(枝) 가운데서 가장 새로운 가지는 서사시의 要素임에 틀림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말은 서정시가 먼저고 서사시는 나중에 되었다는 뜻인데, 구룻세나 맥켄지는 다같이 이와 같은 주장의 立場에서 있는 것이다.

다윈(Charles Darwin)의 進化論을 文學의 형태 發展에 適用시킴으로써 문학형태의 進化論을 주장한 브룬티에르(F. Brunetiere)는 그의 著「佛文學史提要」(Manuel de l'histoire de la littérature française)에서, 文學批評家인 우드베리(G. E. Woodberry)는 「文學의 鑑賞」(The Appreciation of Literature)에서 서정시와 서사시의 先後問題를 論하고 있는데, 前者 브룬티에르는 서사시를 先으로 하고, 後者 우드베리는 서정시를 先으로 하고 있지만 兩者가 다같이 주장의 論據는 明確하지 못하다.

몰튼(R. G. Moulton)씨는 그의 著「文學의 近代의 研究」(The Modern Study of Literature)에서 「민요무용」을 놓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抒情詩와 叙事詩의 先後問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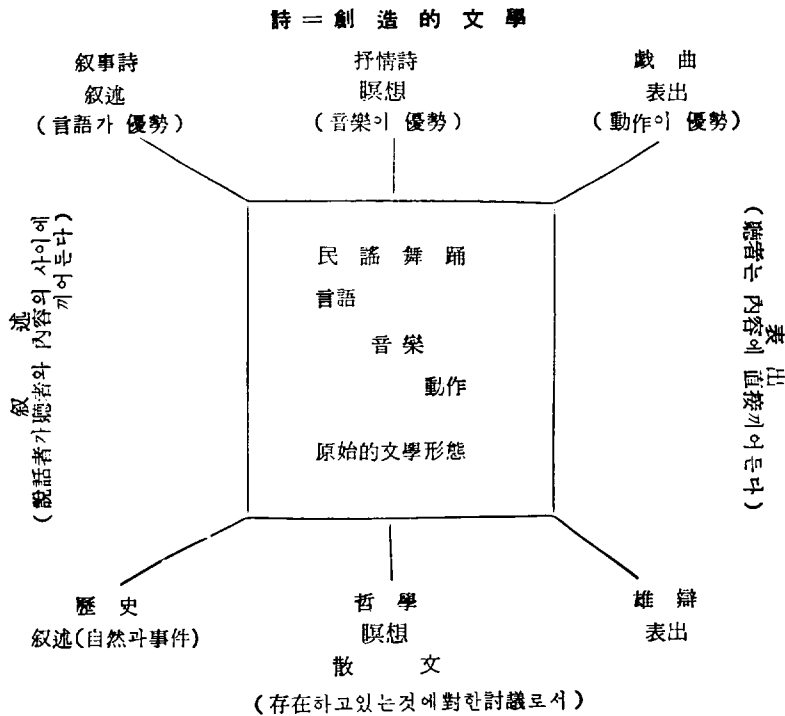
文學의 形態의 根本的 要素는 民謠 舞蹈 (Balladance)이다. 이것은 韻文과 音樂의 伴奏 및 舞蹈과의 結合이다. (中略)

民謠 舞蹈은 이와 같이 오늘에서는 詩, 音樂, 舞蹈이라는 三個 別個 藝術을 이루고 있는 것들의 共通의 幼芽이다.³²⁾

이처럼 그는 詩의 發生期의 狀態인 民謠 舞蹈은 詩, 音樂, 舞蹈, 三個 藝術의 共通의 幼芽 임을 말하고 이어 分化發展하여 가는 過程을 다음과 같이 說明하였다.

민요무용에서 發展하여 온 文學은 어떤 方向으로 나아가서 叙事詩를 낳았다. (中略) 민요무용을 構成하고 있는 三成分 가운데서 오직 언어만이 서사시에 不可缺한 것이다. 초기의 叙事詩의 吟誦은 音樂과 模倣의 動作을 어느 程度 保持하고 있었으나, 이것은 이내 그림자를 지워버렸다. 反對의 方向에의 움직임에 의하여 우리들은 戲曲을 얻었다. (中略) 本來의 민요무용의 模倣의 動作이 여기에서는 優勢하고 있다. 戲曲은 演出되는 詩인 것이다. 민요무용의 第三의 要素인 언어는 우리가 인형극에서 보는 바와같이 不可缺한 것이 아니다. 出發에서 第三方向으로 나아가서 文學은 抒情詩로 된다. 여기에서는 音樂이 언어 보다 優勢하였다. 그래서 動作의 要素가 消失되어 버려도 좋다. (中略) 抒情詩는 反省 명상 祝賀를 暗示하는 것과 같은, 明確한 面이 보다 弱한 양식에 依해서 그 效果가 나타 난다.³³⁾

이와 같이 말하고 이를 說明할수 있는 다음과 같은 圖表를 提示하였다.³⁴⁾



이 圖表에서 **물튼 教授**는 문학의 형태를 叙事詩, 抒情詩, 戲曲, 歷史, 哲學, 雄辯 등의 여섯 개의 要素로 나누고, 이 六要素가 원시적 문학형태인 민요무용에서 各各 分化하여 나온 것임을 보인, 참으로 周到한 研究의 結果에서 얻어진 貴重한 圖表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 圖表가 오늘의 문학의 각 양식이 原始綜合藝術인 민요무용에서 나온 過程을 說明하여 주는 것 以上으로, 그 각 양식 分化의 先後問題에 對해서는 言及이 없다.

그러나 그는 「抒情詩의 展開」를 論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抒情詩는 명상으로 하여 第一人稱의 詩인 것이며, 戲曲은 聽衆(觀衆)을 包含하게 되므로 第二人稱의 詩인 것이며, 叙事詩는 說話者가 讀者와 事件과의 사이에 介在하는 故로, 第三人稱의 詩인 것이다. 명상의 範圍는 명상적 叙述(이것은 叙事詩의 接近)을 包含한다. 詩의 모든 形態가 發生期의 狀態로서 包含되고 있는 民謠舞踊은 抒情詩인 것처럼 보인다.³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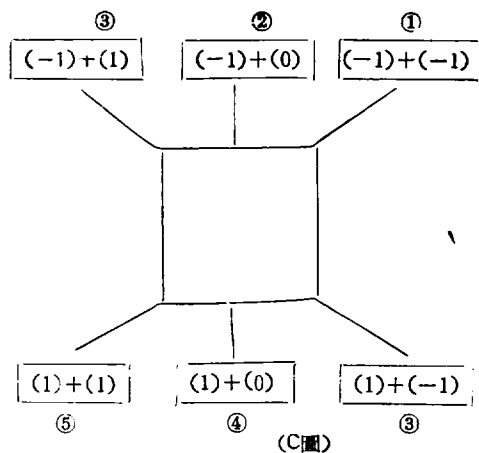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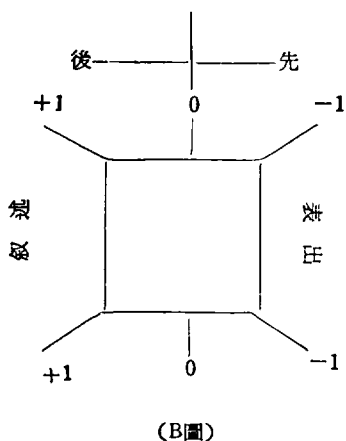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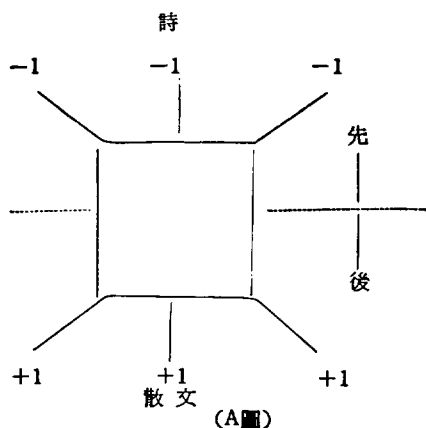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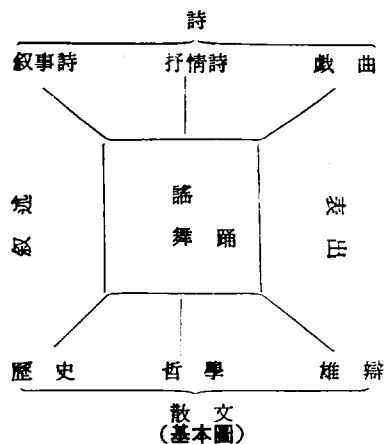
이로써 **물튼 教授**는 抒情詩와 叙事詩와의 先後問題에 對해서 確言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서정시를 先으로 한다고 結論하였다. 이러한 結論은 매우 慎重한 結論이요, 暗示에 찬 結論인 것이다.

「詩의 모든 형태가 發生期의 狀態로서 包含되고 있는 민요무용」이라면 아직 언어가 未發達 時代의 민요무용이요, 언어의 이러한 幼年期의 意思表示나 感情表現은 身體動作의 補助를 많이 받았음은 쉬이 짐작되는 일이며, 따라서 <이야기>로서 서술을 必須 要素로 하는 叙事詩는 單純한 感激的인 言語를 不規則하게 되풀이 함으로써 이룰수 있는 抒情詩보다 훨씬 뒤늦었으리라 믿지 않을 수 없다.

물튼 教授는 민요무용에서 分化獨立하면서 이루어지게 되는 여섯개의 문학형태를 圖表로서 提示하였고 원시시가형태인 민요무용을 서정시인 것으로 본다는 말을 하였을 뿐, 이 민요무용에서 分化獨立하면서 이루어지는 여섯개의 문학형태에 있어서의 그 先後를 말하지 않고 있다.

筆者는 그가 문학적 活動의 必然的인 方向이라고 하여 提示한 세계의 方向中 서로 反對概念이 되는 <詩와 散文> <叙述과 表出>의 關係를 橫과 縱의 交叉線으로 連結 表示하였을 때의 先後순위를 다음과 같이 推斷할 수 있다.

- ① 「詩」(創作的 文學)과 「散文」의 두 方向을 比較할 때, 詩의 方向이 先이다(A圖)
 - ② 「叙述」과 「表出」의 두 方向을 比較할 때, 「表出」의 方向이 先이다. (P圖)
 - ③ (A圖)와 (B圖)를 相互對照하고 六個形態의 순위를 表示한다. (C圖)
- ※ 先後는 相對的으로 先을 (-1), 後를(+1)의 數字로 表示한다.



筆者는 以上에서 抒情詩와 叙事詩와의 先後問題를 다룬 內外學者 十餘名의 意見을 摘出 檢討 하여 보았다. 이들의 學說을 一覽表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學 者 名	著 書 名	要 旨
梁 柱 東	古歌研究	抒情詩가 後
趙 潤 濟	國文學史	叙事詩가 先인것 같다
李 秉 岐	國文學全史	原始叙事文學에서 抒情詩가 分化獨立
張 德 順	國文學通論	叙事詩가 先
土 居 光 知	文學序說	叙事詩가 先
荻 原 朔 太郎	詩의 原理	西洋은 叙事詩, 日本은 抒情詩가 先
本 間 久 雄	文學概論	抒情詩가 先
Victor Hugo	Cromwell	抒情詩가 先
E. Bovet	l'evolution des genres	抒情詩가 先
F. Gummere	Handbook of Poetics	叙事詩가 先

學 者 名	著 書 名	要 旨
E. Grosse	The Origins of Art	抒情詩가 先
Mackenzie	The Evolution of Literature	抒情詩가 先
F. Brunetiere	Manuel de l'histoire de la littérature	敘事詩가 先
R. G. Moulton	The Modern Study of Literature	抒情詩가 先
Woodberry	The Appreciation of Literature	抒情詩가 先

이 學說들은 크게 봐서 三種類로 分類할 수 있다. 즉 敘事詩가 먼저 이루어졌다는 說과 反對로 抒情詩가 먼저 이루어졌다는 주장과 그리고 洋의 東西나 民族에 따라 그 先後가 다르다는 意見이 그것이다.

敘事詩가 먼저라고 주장하는 學者로는 本稿에서 그 說을 引用한 國內學者 五名 全部와 外國 學者로는 土居光知, 감미어, 브룬티에르 等이다.

抒情詩가 먼저라고 주장하는 學者로는 本間久雄, 빅틀유우고, 보베, 구룻세, 맥켄지, 우드베리 等이다.

洋의 東西 또는 民族에 따라 다르다는 主張으로는 本稿에서는 荻原朔太郎氏를 들었지만 그밖에도 꽤 많다.

梁柱東박사, 趙潤濟박사등 國內 元老級의 國文學者들은 한결같이 先敘事 後抒情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國文學者들은 大体로 夫餘, 高句麗, 濊, 馬韓등의 <迎鼓> <東盟> <儺天>이나 農功歌舞등 祭天歌舞들을 敘事詩, 高句麗 琉璃王이 作歌唱之하였다는 <黃鳥歌>를 抒情詩의 濫觴으로, 그리고 過渡期의 性格의 詩歌로는 歌詞도 傳해지지 못하는 <兜率歌>를 들고있다.

<迎鼓>나, <東盟>이나, <儺天>이나하는 따위의 歌舞生活은 國中大會라는 集團的 行事로서 行하여 졌다는 것과 또 그 內容도 祭天, 祭神, 祝禱的 歌舞行事였다는 것으로써 敘事詩로 다루고 있다고 보겠다. 이는 歌舞行事 自体의 樣相을 研究하기에 앞서 「集團的 行事로서의 歌舞」와 「集團을 主題나 內容으로 하는 歌舞」와를 混同한대서 오는 速斷이 아닌가 생각된다.

집단의 노래인 愛國歌가 敘事詩일 수는 없다.

이 學者들 가운데서도 趙潤濟박사는 「韓國詩歌의 研究」 「韓國詩歌史綱」등 詩歌文學에 關한 力著를 많이 내고 있다. 「藝術의 起源」의 著者인 구룻세나, 「文學의 進化」의 著者인 맥켄지등의 學說을 援用하면서, 汎世界的인 原始文學에 關한 理論을 韓國의 古代詩歌에 適用시킴으로써, 韓國詩歌의 解釋에 先驅의 新起元을 劃한 學者이다.

이러한 趙潤濟박사가 韓國詩歌의 起源에 對해서는 「詩歌는 自然人的 呼訴에서 萌芽를 트고 있다」는 말을 하였거니와, 그러면 이 自然人的 呼訴가 抒情的인지 敘事的인지를 言及하여 주었으면 좋았다. 그리고 다음에 韓國의 詩歌는 「祭謠와 勞動謠」에서 始作되었다고 言明하였으면서도, 祭謠인 祭天歌舞에 對해서만 陳述하고 文獻에 記錄이 남아 있지않은 勞動謠에 對해서는 言及이 없다.

韓國의 國文學者들은, 結局 現在 남아있는 貧弱한 詩歌의 作品을 놓고 어느것은 敘事詩, 어느것

부터 抒情詩 그러나 어느 作品은 過渡期的 作品이라는 式의 安易한 解釋을 내리고 있다는 印象을 어쩔 수가 없다.

國內 學者들과 마찬가지로 敘事詩가 先이라고 주장한 外國學者로는 土居光知씨를 비롯하여 감미어나 브룬티에르를 들었다.

土居씨는 먼저 日本文學史에서 두 양식의 先後에 對한 論據를 잡고 있다. 日本 遺存 最古의 文學 作品인 「古事記」 「日本書紀」의 收錄 作品의 內容이 敘事的 作品이라는 데서 出發하여 最古의 詩 <일리아스> <오듀세이아>가 敘事詩였다는 것까지를 생각하는 것 같다.

감미어도 西洋詩歌史에 있어서 最古 最大의 詩歌인 前記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오듀세이아>가 敘事詩였다는 것과, 아리스토틀의 「詩學」에 抒情詩에 對한 陳述이 없다는 事實이 그로 하여금 先敘事를 주장케 한 것 같으며, 브룬티에르 亦是 現存 作品을 中心으로 하여 敘事詩가 먼저 發生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하겠다.

敘事詩가 먼저 發生하였다는 學者들은 大體로 現存 古歌를 中心으로 論하였던 것이요, 詩歌의 發生學의 乃至는 詩歌發生의 心理學的 立場을 考察하는 데는 不足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抒情詩가 먼저요, 敘事詩는 나중에 發生하였다는 學者로는 本間久雄씨를 비롯하여 빅롤유우고 보베, 구룻세, 맥켄지, 우드베리등 諸學者의 說을 引用하였다.

빅롤 유우고씨나 보베씨는 敘事詩 抒情詩의 先後問題에 對하여 先抒情을 주장함은 同軌이지만, 빅롤 유우고씨는 原始時代, 古代, 近代에 相應하는 양식으로서 서정시, 서사시 극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말함에 對하여, 보베씨는 이러한 順序가 歷史上에서 항시 되풀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곧 빅롤 유우고씨의 原始時代 古代 近代가 보베씨에 와서는 新思潮의 發生 成熟 衰退의 Life cycle에 따라 서정시, 서사시, 극이 發生하게 되고, 이러한 양식은 역사상에서 몇번이나 반복된다고 한 것이다.

양식의 순위가 한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상 몇번이나 반복되고 있음을 주장한 學者로는, 앞에서 言及 한바 있는 土居씨도 마찬가지이나, 土居씨는 서사시→서정시를 주장하였음이 다르고, 이러한 反覆說을 주장한 이로는 하아버어트리이드도 들수 있다.

하아버어트리이드(Herbert Read)는 그의 저 「現代詩論」 (Form in Modern Poetry)에서 「浪漫主義의 形式과 古典主義의 形式」을 論함에 있어서 「古典의인 時代와 浪漫的인 時代는 文化의 發生 成熟 衰頹의 循環하는 周期的인 生活環 (life cycle) 과 相互關聯되어 있음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有機的 形式(Organic form)과 抽象的 形式 (abstract form)은 造形藝術史에 있어서의 浪漫派와 古典派의 時代에 相應하고 있다는 것은 明白하며, 有機的 形式으로부터 抽象的 形式에로의 推移는 生活氣와 努力의 時代로부터 沈滯과 飽滿의 時代에로의 推移와 一致하고 있다. 그래서 古典的인 時代나 浪漫的인 時代는 文化의 發生, 成熟, 衰頹가 循環하는 周期的인 生活環 (Life cycle)에 있어서 서로 關聯

하고 있는 것도 또한 明白한 事實이다.³⁶⁾

加藤周一도 「浪漫主義의 文學運動」을 論하는 가운데서 「一般으로 美學的 見地에서는 古典的 美學에 對한 浪漫的 美學이 定義된다. 古典的인 것과 浪漫的인 것과의 對立을 <完成과 無限>과의 對立에 還元시킨 후릿츠 슈트릿히(Fritz Strch)의 獨逸 浪漫主義에 對한 見解는 그 典型的인 境遇」³⁷⁾ 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이들 하아버에트 리드나 加藤周一의 說을 參照하면서 생각할 때, **빅룰유고와 보베가 抒情詩 敘事詩 劇의 先後 順序를 時代의 文化의 特徵的 段階에 相應시키면서 抒情詩 敘事詩 劇의 순으로 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暗示를 提示하여 준다.**

本間久雄, 구룟세, 맥켄지, 우드베리 諸씨는 抒情詩가 敘事詩보다 앞서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本間氏が 「人間이 感情을 表白하게 되어서 第一 먼저 나타난 것은 抒情詩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전혀 구룟세나 맥켄지의 學說에 依支하고 있는 理論이라 하겠다. 구룟세가 「호메로스의 敘事詩에 그려진 英雄의 青銅 투구와 같은 原始 時代의 武器가 아니라」는 말이 라든가 맥켄지가 「抒情詩는 무용의 리듬으로 생겨나온, 不明瞭한 律語에 不適當 反面에, 敘事詩는 어떻게 單純하고 幼稚하다 하더라도 <이야기>를 包含치 않을 수가 없으며, 다른 양식이 比해서 높은 精神力이 要한다.」는 말에는 贊同하지 않을 수 없다.

구룟세나 맥켄지의 說은 現存 文獻에란 依存하지 않고, 오늘의 未開民族의 社會生活을 細密히 調査 研究한 結果에서 얻어진 學說로서, 서정시와 서사시의 先後 問題에서 先抒情을 주장하는 가장 權威있는 學說에 屬한다고 하겠다.

結 言

抒情詩가 먼저나 敘事詩가 먼저나 하는 問題는, 人類 최초의 詩歌가 서정적이냐 敘事的이나 하는 問題일 터인데, 이 問題는 오랫동안 많은 論議를 거듭해 오고도 아직도 하나의 解答으로 歸結지우지 못하고 있다.

本稿에서는 위에서 國內外的으로 이름있는 學者들의 所論을 引用 紹介하고 批判的인 考察을 試圖하였다.

敘事詩가 먼저 이루어졌다고 主張하는 學者들은 現存 最古의 詩歌들을 考察의 對象으로 삼고 있음이 大部分임을 알 수 있겠고, 서정시가 먼저 나왔다고 陳述하는 學者들은 民族學 民俗學 社會學 其他 선사 시대의 人類 生活을 推定할 수 있는 모든 學問 分野의 結論을 動員하여, 人類 最初의 시가생활적 心性을 研究의 對象으로 삼고 있다.

敘事詩가 먼저라고 주장하는 學者들은 西紀 紀元前 八世紀에 이루어진 고대 希臘의 敘事詩 <일리아스> <오디세이아>를 비롯 여러 민족의 고대의 서사적 作品을 들고 있다.

그러나 고대 문명 민족의 하나인 한족이 西紀 紀元前 十世紀에서 六世紀사이 黃河 流域의 生活에서 이루어진 詩 三百篇을 수록한 「詩經」은 抒情詩인 것이니 現存 最古의 詩가 叙事詩만은 아니다.

그리고, 韓國의 詩歌는 叙事詩에서 出發하였다고 주장하는 國內 學者들은 韓國의 詩歌史에 나오는 上古 時代의 文獻收錄作品들을 그 論據로 들고 있다.

韓國 古詩歌에 關한 文獻이나 作品이라곤 참으로 零星한 狀態이다.

무릇 學術的 研究라고 하는 것이 기록을 中心으로 하여 出發하는 것이 慎重하고도 忠實한 研究 態度라고 하겠으나, 限定된 기록에만 지나치게 依存하려는 研究 態度는 偏狹한 울타리를 만들어 놓기 쉽다.

앞에서 引用한 學者들의 所論에 依하면, 고대의 祭天歌舞나 呪術의 歌舞를 叙事詩로 돌리고 있지만, 그럴만한 理由가 說明되지 않고 있다. 하물며 西紀 紀元을 前後하여 우리 詩가 叙事詩에서 抒情詩으로 건너오는 過程의 詩歌임을 말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 詩歌史에 나오는 限定된 資料를 가지고 牽強附會하는 一面이 없지도 않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國內 學者들이 叙事詩라고 規定짓고 있는 詩歌 작품들을 보면 叙事詩에 對한 概念 規定이 確立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迎鼓> <東盟> <舞天> 따위의 祭天歌舞들은 「集團 歌舞」라는 데서 이를 叙事的이라 規定짓고, 「呪術的」이라 하여 「抒情的」인 反對 概念으로 規定짓는 것처럼 보인다.

「集團의 歌舞」라 하더라도 「集團으로 이루어진 歌舞」가 아니고 「집단을 주제로 한 가무」 이어야 할 것은 勿論, 英雄을 中心으로하여 어떤 사건을 展開하는, 최소한의 스토리라도 認定되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의 巫覡社會에서 볼수 있는 巫歌中에는 서사시적 作品을 흔히 볼 수 있지만, 內容이 샤머니즘的이라 하여 叙事詩的이라는 것은 아니다.

叙事詩보다 抒情詩가 먼저 있었다고 주장하는 學者들은 원시 민족은 先史時代에도 있었지만 現代의 未開 社會에도 있다는 點에 着眼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方法論은 現代의 未開 社會에 뛰어들어 그들의 詩歌 생활을 考察 探源하였으며, 이를 古文獻 所傳의 고가와 對照 分析하여 얻어진 成果에 依하여, 先史 時代의 原始 詩歌의 양상을 推定하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原始 詩歌는, 詩 音樂 舞蹈 三位一體의 이른바 民謠 舞蹈의 形態요, 그래서 最初의 詩歌는 서사성을 띤 <이야기>가 아니라 感興대로 저절로 움직이는 무용적 리듬에 따라 생겨나온, 不明瞭한 律語에 不適當을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最初의 시가는 서정시라는 結論을 내리고 있다.

이 抒情詩와 叙事詩의 先後문제는 權威있는 大學者들이 오랫동안 論難을 거듭해온 터이라 淺學한 筆者로서 判斷을 내린다는 일은 부질없는 일로되, 筆者로서는 다음과 같이 結論을 내리고자 한다. 즉 시가의 起源은 自然人的의 呼訴에서 짝이 났다. 따라서 어느 한 민족의 시가적 생활은, 그 민족의 發生한 歷史와 동시에 出發하여, 민족의 運命과 더불어 發展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시가의 起源이 自然人的의 呼訴에서 짝을 났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感情의 所産인

不明瞭한 言語와 全體的인 律動으로 表現되었으리라는 것이 推定되며 이러한 감정적인 부르짖음과 全體的인 表現에 反省이 加해졌을 때, 비로소 <이야기>로서의 叙事的인 表現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우리 국문학에서 叙事詩를 이야기 할 때 「叙事詩」의 「詩」字에서 오는 先入感에서 기껏해야 <迎鼓> <東盟> <舞天> 따위의 祭天歌舞 만을 뒤적거리고 있으나, 「叙事詩」란 叙事文學이기 때문에 上代の 神話 傳說 說話 등 散文속에서 叙事的 作品을 찾아내어야 옳을 일이다. 年代的으로 前後 相距가 얼마 안되는 限定된 몇몇 作品을 놓고, 甲의 詩歌는 叙事詩, 乙의 詩歌는 抒情詩, 甲은 乙보다 몇十年의 前作이니 문학사는 先叙事 後抒情이 原則, 丙의 시가는 年代的으로 甲과 乙의 中間에 낀 作品이니 過渡期的 性格의 作品 云云 함은 지나친 牽強附會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詩歌가 藝術의 分野에 屬하여 있으므로 叙事詩와 抒情詩와의 先後問題는 藝術의 起源說과도 關聯이 있다하겠으나 이 視点으로서의 考察은 別稿에 미루기로 한다.

引 用 文 獻

- 1) 本間久雄, 「文學概論」, p. 144, 1963.
- 2) " " p. 148. "
- 3) " " p. 148. "
- 4) 趙潤濟, 「韓國詩歌의 研究」, p. 3, 1948.
- 5) 趙潤濟, 「韓國詩歌史綱」, p. 5, 1958.
- 6) R. G. Moulton, *World Literature*. 本多顯彰 日譯版 p. 90, 1959.
- 7) 梁柱東, 「古歌研究」, p. 4, 1954.
- 8) " " p. 12, "
- 9) " " p. 17, "
- 10) 趙潤濟, 「韓國詩歌의 研究」, p. 9, 1948.
- 11) " 「國文學史」, p. 11, 1949.
- 12) " " p. 12, "
- 13) 荻原朔太郎, 「詩의 原理」, p. 195, 1928.
- 14) 李秉岐·白鐵, 「國文學全史」, p. 40, 1958.
- 15) R. G. Moulton, *The Modern Study of Literature*. 本多顯彰 日譯版, p. 19, 1957.
- 16) 張德順, 「國文學通論」, p. 70.
- 17) 土居光知, 「文學序說」, p. 135, 1959.
- 18) " 「 " 」, p. 126, 1959.
- 19) " " p. 129, "
- 20) " " p. 122, "
- 21) " " p. 134, "
- 22) " " " "
- 23) 荻原朔太郎, 「詩의 原理」, p. 195, 1928.

抒情詩와 叙事詩의 先後問題

- 24) 矢野禾積 博士 還歷記念論文集, 「近代文藝의 研究」, p. 45, 1958.
25) 本間久雄, 「文學概論」, p. 239. 1963.
26) " " p. 241, "
27) " " p. 239. "
28) " " p. 240, 1963.
29) " " " "
30) R.G.Moulton, *The Modern study of Literature*. 本多顯彰 日譯版, p. 6, 1957.
31) " " " " p. 18 "
32) " " " " p. 19 "
33) " " " " p. 225 "
34) Herbert Read, *Form in Modern Poetry*. 和田徹三 日譯版, p. 6, 1957.
35) 築摩書房 文學講座 IV「文學運動」, p. 4, 1951.